



中央開發(株)

빌딩관리의 자동화와 성력화, NETWORK을 통한 고층건물관리의 LEVEL-UP을 지향하고, 선진관리기법의 국내 정착을 선도하고 있는 中央開發(株) 빌딩 管理事業部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산재한 30여개 고층건물의 임대·용역관리와, 풍부한 심야 전력을 활용한 비축열냉방 SYSTEM의 설치, 절전용 기구의 판매와 이와 관련된 건물의 개·보수공사 등 에너지

절감사업, 쾌적한 실내환경 창조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사업, 15년간 축적된 건물관리 KNOW-HOW를 활용한 B.A.S(BUILDING AUTOMATION SYSTEM)의 개발과 판매·설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층건물의 특수성인 고단위 밀집인원의 거주로 인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해의 대형성으로, 방재관리와 입주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객과 입주자에게 만족을 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상시 안전대책 메뉴얼을 제작하여 E/L사고시, 화재발생시, 정전시, 안전사고 발생시 등의 응급조치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월 1회이상 가상 상황을 부여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전원이 방화·안전요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관계법규와 규정을 능가한다는 경영자의 MOTTO하에, 전기·설비·소방·보험관리자 등 부문별 전문인력으로 상설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의 기능별 SYSTEM 점검, 건물유지관리에 관한 보험설계와 보험할인 등 위험의 전기방안 제시, 보일러 등의 열공급시설과 수변전설비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존의 점검 방식에서 탈피, 건물관리운영 전반의 RISK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종합 위험관리에 중



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축적을 활용하고 기술의 공유화를 추구하고자, 中央開發(株)는 소방점검 용역업 자격을 취득하여 자체내 뿐만 아니라 他건물에 대한 위험관리에도 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내 건물관리의 LEVEL-UP을 위해 B.A.SYSTEM과 건물 위험관리 기법의 꾸준한 개발과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아산만공장 고유문화 창출

기아자동차(주) 아산만공장!

바다위에 떠있는 자동차공장 바로 그것이다.

1백만여평에 달하는 이곳 대단위 MOTORS TOWN은 일사불란한 정연함과 살아있는 생동력으로 한국 자동차공업의 메카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산고의 아픔을 겪듯이 아산만 공장이 탄생하기까지 실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결과 「아산고유문화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기까지 새공장, 새기계, 새사람이 조화를 이루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



소방훈련시 GAS에 질식한 자위소방대원을 구출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랐다.

새공장·새기계·새사람의 조화

라인자체는 유해·위험공정을 거의 자동화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공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은 가능했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유형의 재해가 전체 안전시스템을 놀라게 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원인은 간단한데에 있었다.

즉, 근로자의 대다수가 공장신축과 함께 투입된 신규채용자였던 것이다. 사고의 90%이상이 6개월 미만, 더욱이 1개월미만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나 달해 무재해달성을 위한 해답을 얻은 만큼 이에 대한 노력에 적극성을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직장분위기가 우선적

이 때 시작한 안전행동 7대 목표는 분위기 쇄신과 안전성 확보에 큰 힘이 됐다. 이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행실, 의식, 신속으로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4가지 항목에 근로자 개개인의 모범적이고 표준화된 근무행동과 긍정적인 근무태도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공정 단축을 통한 정확한 근무상태가 정착하게 됐다.

더욱이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의 능률은 자연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안전보전이 곧 생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근로자 스스로가 체감하게 됐다.

특히 매월 우수부서를 뽑아 포상하고 있으며 최우수 부서를 비디오 교육교재로 활용케 됐으며, 부서간 청정상태를 현장감독자들이 비교·평가하여 자기부서의 청정상태를 개선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이에 의해 3현주의-현장·현물·현상-실천을 피하게 됐고 현상타파를 통한 현장개선이 촉진되었으며 불량률 ZERO, 재해율 ZERO, 고장률 ZERO, 낭비율 ZERO에 도전하고 있다.

실천하는 안전상 정립돼야

현장 안전관리자의 체험적 한마디는 안전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듯했다. 「이는 것을 실천

전 로스 프리벤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 20년전과는 달리 현장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부문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아의 안전맨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자율」이다.

「현장감독자에 의해 안전을 선취확보하고 직장, 반장의 노력에 향후 안전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산만공장 사정안전예방활동은 무재해운동과 청정운동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서별로 목표일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1배목표를 달성한 후 2배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INCENTIVE 제도 동기부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1배시에는 달성장과 포상금을, 2배시에는 달성패와 포상금을 각각 수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무재해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양성 교육에도 주력, 산업안전협회와 안전공단을 통해 요원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운동은 7가지 행동목표운동으로서 전공장을 단위로 각 부서별 자체점검, 부서별 CYCLE 점검진행도표에 의해 정해진 부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는데는 다소의 불안요소가 있지만 이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는 아산만 공장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력이 강하다.

전체 식구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는 이곳 현장의 열기는 공장앞의 바다만큼이나 넓고 힘이 있다.

전 로스 프리벤션(CHUN LOSS PREVENTION)은 회사명에서 품겨주듯이 “재해예방을 위한 세계 제일의 방재업체”를 목표로 지향하며 1985년에 창립, 다양한 종류와 수많은 시설의 설계, 시공감리, 점검, 교육 및 방재상담을 통해 국내방재업계를 선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의 대표적인 실적만 꼽는다고 해도 설계분야에서는 초대형 건물이며 인텔리젠트화한 부산롯데월드, 대형전시장의 표본인 전쟁기념관, 국내외 고도의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SS BTX, NCU 플랜트시설, 집약적이며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우주연구소, 아주의대병원, 동아일보신사옥, 부산문화방송, 검찰청사 등등이 있다.

다음으로 시공감리 부분에서는 종합방재기술의 현장인 무역전시장, 현대중앙병원, 우편물 집중처리국, 한대체육관, S항공 플랜트 등 다수의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타 발전소, S코닝, 반도체 등 산업체의 점검, 유관 정부기관 및 업체와의 방재상담, 관련 공무원 및 기술자, 학생을 위한 교육 등 국내 방재기술 향상에 상당한 기여와 함께 다수의 업적을 남겨 관련업체에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활용과 함께 조직개편, 관련시설의 현대화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최신기술정보의 흡수 소화로보다 세련되고 정밀한 양질의 소방엔지니어링 제공, 보다 친절하고도 우수한 소방 서비스업무를 공급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인들은 물론 차세대를 위한 방재도서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일과 계획이 하나하나 알차게 이루어 질때 명실공히 한국의 참된 방재업체로서 그 이름을 드날릴 것이 명약관화하며 또한 기대도 크게 한다.